새만금 사업 성공 및 무사고 안전 기원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원장 일허)은 4월 4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가력방조제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 및 무사고 안전 기원재'를 봉행한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가 주최하고 태고종 전국신도회에서 주관하는 '새만금 사업 무사고 안전 기원재'는 태고종 소속 300여 사찰에서 7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기원재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나라의 안녕,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희생된 뭇생명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교무부장 단정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안정,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두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 세운다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범시민대회 개최

김대중 ·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공간이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 들어선다.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선 前 백양사 주지, 이하 준비위)는 3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선 스님은 "두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만남공원, 상징조형물, 작은도서관, 시민사랑방, 교육관 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주요인사와 시민사회단체 원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범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스님은 "한해 1000만 명이 찾는 무등산 문빈정사 주변은 과거 민주 인사들이 자주 모이는데 기여한 종교, 학술, 법조, 여성, 시민단체, 행정, 경 · 제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모시고 범시민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 노무현 前 대통령추모공원 준비위원회 위원장 지선 스님이 3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민주주의 · 광주의 자산인 두 대통령의 뜻을 살려 종교와 시민의 소통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광주 무등산에 '민주주의 올레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은 2009년 5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안장식 이후 영호남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어 9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의 추모사업과 병행해 기념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준비위가 결성됐다.

문빈정사는 인근 땅 600m²을 던 공간으로 상징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곳"이라며 "참세상을 준비위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기념공원은 1200m²에 조성될 예정이다.

준비위에는 청화 스님(조계종 前 교육원장, 정릉 청암사 주지),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 목사(6 · 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등 구 민주계인사와 이해찬 前 국무총리,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여했다. 현재 준비위는 광주시에 추모공원에 관한 기본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준비위는 향후 두 前 대통령의 서거일 전후에 맞춰 5월 17일~8월 24일 100일간 추모기간을 마련해 온라인 백일장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전북도청 연우회 윤여영 총무

성스러운 곳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축복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런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윤여영 거사(법명 총지)는 4년 전부터 전북도청공무원 불자 모임인 연우회에서 총무 소임을 맡아 공무원 불자들의 친목과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전북지역은 타종교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자들이 위축되기 쉽지만 연우회 회원들은 윤거사의 도움으로 불심을 키워가고 있다.

전북도청공무원 불자 모임 연우회 총무 윤여영 거사.

전북도청 불자직원들의 모임인 연우회는 10년째 활동 중인 윤여영 거사와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무원불자들이 꾸준히 늘어 현재 회원이 70여 명에 이른다. 연우회 회원들은 개인 신행활동을 넘어 지역 내 시설들을 찾아 봉사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윤여영 거사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대 어르신들의 영향이 컸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염불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이면 <천수경> 독경을 하셨습니다."

윤 거사는 전주 전북불교대학 법사과를 졸업하고 포교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기획처장으로 봉사 중인 그는 지역포교에 여념이 없다.

특히 향토사단 김제 대대와 진안 대대 법당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법회를 여는 등 군 포교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정년퇴임을 5년 앞둔 윤 거사는 "퇴임 후에는 군포교 활동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라며 "청년 불자 포교에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거사를 보고 자란 두 아들도 포교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군장교(ROTC)로 임관한 두 아들도 군법당을 찾아 불자 사병들과 함께 법회를 이끌고 있다"는 윤여영 거사의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윤 거사는 3년 전부터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여영 거사는 "2009년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이 출토됐을 때의 환희심과 감동을 잊지 못한다"며 "한 달여 간 진행된 사리장엄 친견법회 때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안내하고, 친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1400여 년 전의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늘 행복했기 때문이란다.

윤여영 거사는 "두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피곤했지만, 불자라는 것에 행복감과 자긍심이 그만큼 들었을 때도 드물었다"며 "지역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성스러운 성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는 당당한 불자였으면 좋겠다. 웅장하고 장엄했던 익산 미륵사지의 찬란한 역사가 하루빨리 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정한 잘사는 길이란…

군산 동국사 암도 스님 초청법회 봉행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3월 21일 군산 동국사 일요가족법회에서 '잘사는 길'을 주제로 초청법회를 했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는 3월 21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했다.

동국사 신도회와 감로회, 불심회, 칠성회, 합창단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200여 불자가 동참해 큰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암도 스님은 '잘 사는 길'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삶이 바로 진정한 잘사는 길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가족법회에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진정한 잘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동국사는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64호, 석가삼존불은 전북 지방문화재 213호로 지정돼 있다. 최근 석가삼존불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심사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유재산 출연 결의 금산사 교구종회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스님)는 사유재산 출연의 종단방침에 따라 '입적 후 사유재산을 종단 내 출연할 것'을 결의했다.

금산사는 3월 20일 전북불교회관에서 45명의 교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교구종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종회에서 "청정비구승단의 구성원으로서 입적 후에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비록 홍보가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입법취지가 좋은 많은 만큼 종단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적 후 사유재산 출연을 결의한 교구본사는 쌍계사, 백양사, 수덕사에 이어 4개본사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불기 2553년 결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한편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에 대한 교구 사찰의 관심과 지원을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눈높이 맞춘 서비스 실천할 터

원행 스님 서원복지관 5대 관장 취임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신임 관장 서원 스님 취임법회가 3월 21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금산사 복지원이 전주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서원노인복지관 제5대 관장에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이 취임했다.

3월 21일 서원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전북지역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500여 어르신이 참석해 원행 스님의 관장 취임을 축하했다.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쌓아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다" 며 "서원복지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 희망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복지관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도 축사 등을 통해 원행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한 단계 성숙된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초특가!! 단 4회

신청마감 4월 23일

출발일 : 5월 24일, 28일 (2회) / 6월 4일, 15일 (2회)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6일 - 135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 140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 / 헤호 - 7일 - 145만원

특전
1. 국제선 및 국내선 왕복항공료 포함. 2. 전일정 특급호텔 및 식사포함. 3. 1억원 여행자 보험 포함
4. 각종 항공세 포함 (국제선 및 현지항공세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천공항세, 유료할증료) 5. 일정표상에 명시된 파고다 입장료 포함.
6. 미얀마 비자비용 (25,000원)
7. 불포함 외에는 추가비용 없습니다. (불포함 : 개인적인 제반사항 및 생수비용, 가이드+기사팁)

- 구화산 / 상해 / 보타산 6일 5/23일, 6/6일

- 북경 / 백두산 6일 - 베트남 하롱베이 / 캄보디아 씨엠립 6일 - 캄보디아 씨엠립 5일 - 방콕 / 파타야 5일 - 대만 4일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불교성지전문 마하연투어 대표전화 ☎ 02)365-7747